

모임 11: 신명기 26장

Dr. Cynthia Parker

신시아 파커 박사님과 신명기에 대한 그녀의 가르침입니다. 신명기 26장 11절입니다.

서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그래서 이 강의를 위해 우리는 신명기 26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6장은 법전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26장을 읽기 시작할 때 선택된 장소가 이 장에서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18장 이후 공식적으로 선택한 장소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법전을 응집력 있는 단위로 생각하면 12장에서 선택한 장소의 소개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26장에 있는 법전을 선택한 장소에 다시 적으십시오. 그래서 정말 좋은 북엔드입니다. 26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일단 그 땅에 들어가면 행하라는 지시를 받은 두 가지 전례 행사 또는 의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신명기 26장을 봅시다.

두 가지 전례 의식

그래서 우리는 먼저 두 개의 서로 다른 법전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 각각을 읽을 것입니다. 또는 법전이 아니라 전례 의식을 읽을

것입니다. 2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네가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네가 그 기른 땅의 모든 소산 중에서 만물을 취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그것을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갈지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다시 한 번 그 땅의 소산을 취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이 이 땅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고 있으며 그 땅의 소출을 취해야 합니다.

자, 그것은 정확히 어떤 생산물이 될 것인지를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아마도 그것이 농업력을 포함하는 모든 것이 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이야기한 모든 것은 땅의 현상금입니다. “바구니에 담아 선택한 곳으로 가져 오십시오.”

3절에 “너는 그 때에 섬기는 제사장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옵고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간 것이 우리에게 주세요.”

이제 흥미로운 점은 이 첫 번째 전례 법령에서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개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간 날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개인으로서 실제 토지 소유자인

하나님으로부터 상속 재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온 사람이라는 개인적 인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조

그리고 4절에 “제사장들이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가져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제단 앞에 놓”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5절부터 10절까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신조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사를 낭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이 하기를 바라는 것은 내가 읽을 때나 여러분이 읽을 때 저를 따라오면서 이 신조에 사용된 대명사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당신의 신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당신이 말해야 할 단어와 같은 글이 있음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10절까지 이어지는 대명사에 주목하십시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아버지는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더라.”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이상한 문구입니다. “내 아버지는 방황하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아마도 아브라함이나 야곱일 것입니다. 둘 다 어느 시점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나왔는데, 따라서 아람의 칭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학자들도 “나의 아버지는

떠돌아다니는 아람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아람어라는 용어는 훨씬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람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적이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신조는 상당히 초기 문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아람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의 아주 강력한 적이기 이전의 아주 초기의 출처에서 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브라함이든 야곱이든 이것이 어느 쪽이든 작동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족장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신조에서 “방황하는 아람인”이라고 말함으로써 이 모든 농산물을 땅에서 가져온 이 농부는 고대 과거에 그들이 땅이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아람 사람, 땅이 없는 자, 나그네, 떠돌이, 땅 없는 자.

“그러므로 내 아버지는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 거류하는 자가 적으나 거기서 그가 크고 강하고 인구가 많은 민족이 되었던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고 괴롭게 하여 심히 이에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압제를 보시고 강한 손과 편 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 또 큰 두려움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이제 보라 내가 너희의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니 , 오 주여, 나에게 주셨나이다.”

자, 그게 10절의 끝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대명사에 주목하셨나요?
 그래서 이 신조에서는 농부가 와서 땅의 첫 열매를 바칠 때 이야기를 합니다.
 . "그는 내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우리는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이집트가 우리를 압제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가 그동안 해왔던 일을 다시 보게
 됩니다. 개인으로서의 당신과 복수인 당신의 결합, 전체 종족 그룹.

신명기는 이 신조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축하하기 위해 들어갈 때 개인으로서 와야 하지만 그들이 전체
 인구로서 지금 살아계신 분들도 있지만 과거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아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있는 대명사가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와야 해."
 그래서 개인으로서 저도 지금 응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신조 또는 이것이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통해 우리는
 사람들이 그들의 역사, 그들의 이야기가 땅이 없는 방황하는 아르메인
 조상에서 땅에 상륙한 것 중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방법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좋은 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들은 노예 상태에서
 구속됨 상태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조는 그들이 큰 선물을 받은

시점까지 그들의 전체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그들은 이제 사랑 안에서
하느님께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와 이 땅

그래서 또 다른 흥미로운 내용이 9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조의 처음부터 농부인 백성이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식은 선택한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략적인 위치를 알고 있고 9절에서 “그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병렬로 보이는 두 개의 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마쿰 hazeh
는 “이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레츠를 주었다 헤이즈 는 “이 땅”입니다.

자, hamaqom은 신명기에서 꽤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질문의 일부는 9절에서 의미하는 “이 곳”이 무엇입니까? 글썄, 우리는
그들이 선택한 장소에 서 있다는 더 큰 맥락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이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오셨다거나 내가
지금 이곳, 이 택한 곳으로 왔고 하나님께서 이 땅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또는 이러한 문구가 서로 병렬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hamaqom 도 haaretz 일 것입니다 .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즉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으로 인도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의도적으로 모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선택된 장소와 모든 분산된 도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본 것은 도시가 선택된 장소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두 장소에서 기능하는 지도자가 있는지에 대해 이 모든 법전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 어떻게 두 곳에서 활동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선택된 장소에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도록 부름을 받았는지. 그들은 모두 자신이 거룩하고 구별되고 구별된 것으로 지정되었음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그들의 도시에서의 그들의 행동은 이 단어들이 선택된 장소에 배치된 것과 같이 이 단어들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비록 알아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는 선택된 장소를 제쳐두고 있습니다. 그의 거처는 레위인이 거기에서 섬기므로 거룩하니라 그곳은 그들이 제물을 바칠 수 있는 유일한 장소 이기 때문에 신성합니다. 그러나 신명기는 성결이 한 곳으로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러므로 택한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그 택한 곳에 제사를 드리며 레위인이 그 택한 곳에 있다고 하여 그 나머지 땅이

거룩하지 아니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에 속하기 때문에 신성합니다.

따라서 모호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사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곳"은 선택된 장소를 가리킬 수도 있고 땅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신성한 것과 신성하지 않은 것의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곳에 있을 때 인용하고 있는 이 신조에서도 거룩함이 택한 곳에서 흘러나와 그들 민족의 가장 끝자락까지, 그 땅 전체에 흐르고 있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두 번째 신조 - 가난한 자를 위한 십일조

따라서 이 첫 번째 신조 다음에 26장에서 두 번째 신조에 도달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신조는 "가난한 십일조"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또 다른 십일조이지만 이것은 고유한 십일조입니다. 백성이 매년 택한 곳에 드리는 정상적인 십일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절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음, 저는 10절의 맨 끝 부분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레위인과 타국인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집에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니라." 실제로 첫 번째 항목에 속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제삼년 곧 십일조를 드리는 해에 네 소산의 십일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주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르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었노니 당신께서 저에게 명하신 당신의 모든 계명을 지키며 당신의 계명을 하나도 여기거나 잊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더 진행하기 전에 올해가 3년차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십일조 3년차입니다. 그래서 1년의 십일조는 선택된 곳으로 갑니다. 2년째 십일조는 택한 곳으로 갑니다. 3학년은 선택한 장소로 가지 않고 성문에서 서로에게 분배됩니다.

그러면 이 십일조를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글썄요, 1년과 2년에 그것이 선택된 장소로 갈 때, 레위 사람들이 수령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시며 당신이 그분께 십일조를 드리고 있음을 인정하는 매우 적극적인 시위입니다. 그러나 올해 3년 차에 여러분은 이번에는 공동체 내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먹이고 돌보는 책임을 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신명기 전반에 걸쳐 “만족시키다”를 의미하는 Shabbat 이라는 동사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전반에 걸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필요를 만족시키신 분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전체에 걸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특별한 축제를 통해 사람들은 마을 내에서 궁핍한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과부에게.”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너희 성읍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래서 이 명절에 너희가 와서 하나님께 약속할 때에 내가 내 집에서 성물을 취하여 내 주위에 있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주려고 심히 조심하였노라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만족시키셨음을 압니다. 이제 당신의 행동을 본받아 응답하고 똑같이 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방법입니다.

이 행위는 선택된 장소에 십일조를 내는 것만큼이나 신성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신성한 행동은 당신이 신을 향해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행동하기로 선택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축제의 나머지 부분

그래서 우리는 14절에서 그 특정한 절기의 나머지 부분을 읽을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 듣고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나이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모으지 아니하였다” 는 것은 내가 이 십일조를 더럽힌 것이 아니라 거룩한 십일조라는 뜻입니다. 택하신 곳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문에 있는 백성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15절,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굽어보시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주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을 내리소서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주 주의 하나님께서 명하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이 규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법률 코드의 달기

자, 마지막 세 절은 이 축일 중 어느 하나에도 잘 맞지 않지만 법전 전체를 마무리하는 역할을 아주 잘 수행합니다 . 따라서 우리는 선언, 청중 및 행동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법전과 관련된 모든 것을 마무리합니다. “너는 오늘 여호와 앞에서 선언하였다.” 그래서 당신은 “이스라엘 자손이 청중이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그의 길로 행하여 그의 동상과 그의 계명과 그의 규례를 지키며 그의 음성을 청종하라 여호와께서 오늘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할 일을 주님께 선언하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자신이 하실 일을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오늘 너를

자기 백성으로, 보배로운 소유로 삼으시고 그의 모든 계명을 지키게 하시고
 또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칭찬과 명예와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성민이 될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라.
 ”

그리고 우리는 법전을 끝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백성이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고 그의 계명과 그의 율법을 행할 때에는 그들을 세우리니 그들이
 모든 민족의 본이 되리라 그 후에야 율법이 마치느니라

신명기 27-29장의 미리보기

그래서 우리가 27장, 28장, 29장으로 들어갈 때,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땅 밖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인식으로 되돌아갑니다. 12-26절,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먹는 것, 리더십을 확립하는 것, 사회
 구조와 사회 윤리를 갖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 논의해 왔고 이제 우리는 그 땅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물러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명기 1-3장 맨 처음 에

보았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조금 돌아갑니다 . 그래서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그것을 다룰 것입니다.

신시아 파커 박사님과 신명기에 대한 그녀의 가르침입니다. 신명기 26장 11절입니다.